

## 1. 『논어』의 내용과 명칭

### ㉠ 『논어(論語)』의 내용



- 『논어(論語)』: 공자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
- 원(元)나라, 하이손(何異孫)의 논어 내용 분류
  - ①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기록한 것
  - ② 공자가 제자들의 물음에 답한 것
  - ③ 제자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한 것
  - ④ 당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 ⑤ 군주의 물음에 대해 신하의 입장에서 대답한 것
  - ⑥ 대부의 물음에 대해 스승과 제자가 대답한 것

#### - 청(淸)나라 말 양계초(梁啓超)의 내용 분류

- ① 개인의 인격 수양에 관한 가르침
- ② 사회의 윤리에 관한 가르침
- ③ 정치에 관한 이야기
- ④ 철학적 이치에 관한 이야기
- ⑤ 제자나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따라 가르침을 베푼 문답
- ⑥ 제자나 옛사람 혹은 당시 사람들에 대한 평가
- ⑦ 스스로 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
- ⑧ 공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제자들의 눈에 비친 공자의 인격

## 1. 『논어』의 내용과 명칭

### ① 『논어(論語)』의 명칭

- 공자 스스로 편찬한 책이 아님
- “논어”라는 책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님
- 『예기(禮記)』, 『방기(坊記)』에서 처음 등장
- 『사기』에서 논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
- 『논어(論語)』는 한나라 경제, 무제 이후에 자리를 잡음
- “논어”라고 하기 전에는 “전(傳)”, “기(記)”, “공자왈(孔子曰)”, “어(語)”, “논(論)”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름

### ② 『논어(論語)』라는 책 이름의 뜻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에게 응답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과 공자에게서 들은 말이다. 당시 제자들이 각자 기록한 것이 있었는데 공자가 돌아가신 후 문인들이 모으고 논찬(論纂)하였기에 “논어”라고 부른 것이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 공자가 직접 했거나 혹은 공자와 관련된 말을 모아(어(語)) 그에 대해 평론하고 토론하여(논(論) 편찬하였기 때문에 “논어”라고 불렀다는 것
-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논찬했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 논어가 “논”이나 “어”로 약칭될 때 “논” 역시 공자의 이론, 말 등의 뜻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서(漢書)』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음

## 1. 『논어』의 내용과 명칭

### ㉠ 『논어(論語)』라는 책 이름의 뜻

“논어란, 공자가 제자들과 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논’이란 ‘윤(倫)’의 뜻이니 윤리, 즉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 ‘어’는 ‘서(敍)’의 뜻이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서술한다는 말이다.”

『석명(釋名)』, 『석전예(釋典藝)』

- 순서를 잡아서 차례대로 풀어 쓴 것
- 그러나 자신이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 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논”과 “어”를 이 두 글자와 발음상 유사한 “윤”과 “서” 두 글자를 통해 뜻을 풀고자 한 것일 뿐, 논어 전체 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이 아님

“논(論)이란 경문하다는 ‘윤(綸)’의 뜻이고, 바퀴의 ‘윤(輪)’의 뜻이며, 이치의 ‘이(理)’의 뜻이며, 순서의 ‘차(次)’의 뜻이고, 편찬하다는 ‘찬(撰)’의 뜻이다.

이 책으로 세상의 일을 다스릴 수 있기에 ‘윤(綸)’이라 하고, 원만하고 무궁하기에 ‘윤(輪)’이라 하며, 모든 이치를 포괄하기에 ‘이(理)’라 하고, 편장들이 순서가 있기에 ‘차(次)’라 하며, 여러 현인이 엮었기에 ‘찬(撰)’이라 한다.

정현(鄭玄)의 『주례주(周禮注)』에서 ‘대답하여 말하는 것을 어(語)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책에 실린 내용이 모두 중니가 제자와 당시 사람들에게 응답한 말이므로 ‘어’라고 했다. 또 ‘논’의 아래에 ‘어’자를 둔 것은, 반드시 논찬을 거쳐서 실었으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논어주소서해(論語注疏序解)』

- ‘논(論)’과 발음상 유사한 글자를 통해 논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나온 『한서(漢書)』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수용
- 그러나 여기서 ‘논’의 본래 글자 의미를 수용하여 논찬하다, 여러 사람이 토론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논어가 공자가 제자들에게 대답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를 대답하여 말한 것만을 한정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음



## 1. 『논어』의 내용과 명칭

---

### ① 『논어(論語)』라는 책 이름의 뜻

논어 안에 쓰인 “논”과 “어”자의 용례에 착안하여, “어”자를 대답에만 국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다”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공자학설(孔子學說)』

- “논어”란 공자의 말을 토론하여 남긴 것이라고 풀이
- “논어”라는 책 이름은
  - 공자가 직접 언급
  - 공자와 관련된 말
  - 후대의 공자 제자들이 토론의 과정을 거쳐 편찬

## 2. 『논어』의 편찬자와 편찬 과정

### ① 『논어』의 편찬자

- 공자의 제자들이 함께
- 제자 중 몇 사람
- 유약(有若), 증참(曾參)의 제자들
  - ➔ 한두 제자에 의해, 한 시기에 편찬된 것이 아님
- 논어의 편찬은 여러 시기, 여러 사람에 의해 이루어짐
- 청나라 때 최술(崔述)이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과 『논어여설(論語餘說)』에서 상세하게 언급

### ➤ 문체가 서로 다른 상론과 하론

- 논어는 앞의 10편과 뒤 10편의 문체가 다름
  - 상론은 대체로 문장의 글자 수나 문장의 수가 적고 간결, 하론은 문장이 복잡하고 글자 수 역시 많음
  - 공자가 대부(계강자(季康子) 등)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상론에서는 “子曰”이라고 하는데, 하론에서는 “孔子對曰”이라고 함
    - “孔子對曰”이라는 말은 상론의 경우 정공(定公)이나 애공(哀公)과 같은 군주에 대해 대답할 때만 존중하여 쓰는 말
  - 상론과 하론에서 “관중(管仲)”을 기록하는 태도가 크게 차이가 남
    - 논어의 편찬에 노나라와 제나라 출신 학자들이 섞여 있기에 노나라 학자는 오패(五霸)나 관중 등을 언급조차 싫어함
    - 제나라 학자는 자국 출신인 관중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이는 초기 논어의 전래 과정에서 노론(魯論)과 제론(齊論)이 함께通行되었던 것과도 관련됨

## 2. 『논어』의 편찬자와 편찬 과정

### ➤ 하론 중 제11-15편, 제16-20편에서 차이가 있음

- 앞 5편에서는 공자의 말을 기록할 때 “자왈(子曰)”이라고 시작, 뒤 5편 중 「계씨」, 「미자」에는 모두 “공자왈(孔子曰)”로 시작, 「자장」에서는 “중니왈(仲尼曰)”
  - “공자왈(孔子曰)”, “중니왈(仲尼曰)”은 “자왈(子曰)”보다 친밀감, 존경심이 떨어지는 말
- 앞 5편에서는 직접 공자를 부를 때 “子”라고 호칭
- 뒤 5편 중 「양화」에서 제자 자유가 책임자로 있는 무성에 간 이야기를 언급할 때 공자를 “부자(夫子)”라는 말로 씀
  - “부자(夫子)”는 전국시대 이후 습관의 반영
- 후 5편에는 역사적 사실과 달라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음
  - 전국 말기의 학자들에 의해 확실하지 않은 자료들이 더해진 것

#### 상론

- 공자 사후 직계제자들에 의해 편찬

#### 하론 중 제11-15편

- 상론에 이어서 나온 속편
- 증자 사후 공자 제자의 제자에 의해 편찬

#### 하론 중 마지막 후 5편

- 전국시대 말기 학자들에 의해 불확실한 자료들이 추가된 상태로 편찬

### 3. 『논어』가 현대에 전해오기까지

#### ① 삼론(三論)

- 노론(魯論): 노나라 논어
- 제론(齊論): 제나라 논어
- 고론(古論): 한나라 때 공자의 옛집을 수리하다가 벽에서 발굴된 논어
- 현재 삼론은 완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없음
- 각기 전승된 지역이나 사람이 달랐고, 글씨체와 출현 시기 그리고 편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남
- 고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학문의 전승이란 매우 엄밀하였기에 서로 다른 내용과 체제를 가진 삼론이 각각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계속 전승됨

#### ② 노론과 제론의 통합

##### ➤ 장우의 『장후론(張侯論)』

- 한 원제(元帝: B.C.48 - B.C.33년 재위)때 재상 장우(張禹)
- 처음 하후건(夏侯建)에게 노론을 전수받고, 용담(庸譚)에게 제론을 배움
- 노론을 기본으로 제론을 통합
- 『문왕(問王)』, 『지도(知道)』 두 편 삭제
- 노론이 20편으로 정해지면서 이를 『장후론(張侯論)』이라고 부름
- 당시 “논어를 공부하려면 장우의 논어를 읽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학자들 사이에서 장우의 논어를 존중하게 됨



### 3. 『논어』가 현대에 전해오기까지

---

#### ① 후한 정현(鄭玄)의 『논어주(論語注)』

- 제론과 노론 통합 후 다시 고론을 통합
- 고론의 자구를 근거로 하되 노론에 많이 쓰인 가차자(假借字) 교정
- 오대(五代) 시기 이후에는 없어졌음
- 중국의 돈황 지역에서 일부만 발견됨
- 정현의 『논어주』를 통해 삼론이 통합되면서 현재까지 전해온 것





### 3. 『논어』가 현대에 전해오기까지

#### ① 중국의 4대 주석서

- 하안(何晏)의 『논어집해(論語集解)』
- 황간(皇侃)의 『논어의소(論語義疏)』
- 형병(邢昺)의 『논어주소(論語注疏)』
- 주희(朱熹)의 『논어집주(論語集注)』
- 그 외...
- 청 유보남(劉寶楠)의 『논어정의(論語正義)』
- 청 정수덕(程樹德)의 『논어집석(論語集釋)』

#### ② 『논어집해(論語集解)』

- 오늘날까지 전체가 전해지는 책 중 가장 오래된 것

하안(何晏)

- 위나라 출신
- 왕필과 함께 위진현학(魏晉玄學)의 개창자
- 여러 『논어』의 주를 모아 10권으로 된 책 편찬
- 후한의 공안국(孔安國), 포함(包咸), 마융(馬融), 정현(鄭玄)과 위나라의 왕숙(王肅), 진군(陳群) 및 주생열(周生烈) 등의 견해를 인용
- 하안이 자신의 견해를 직접 기록한 것도 적지 않음
- 공안국의 주를 가장 많이 인용함
- 황간의 『논어의소(論語義疏)』, 형병의 『논어주소(論語注疏)』 모두 이 책을 주로 하여 설명을 덧붙인 것
- 국내에서는 이강재 교수에 의해 『중국어문논역총간(中國語文論譯叢刊)』에 연재, 2016년 1월 번역의 연재 완료

### 3. 『논어』가 현대에 전해오기까지

---

#### ① 『논어의소(論語義疏)』

- 『논어집해』에 대한 해설서
- 문장 전체의 뜻을 푸는 데 중점
- 도가나 불교적인 색채 포함
- 『논어주소』와 『논어집주』로 인해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책
  - 청나라 때 일본을 통해 역수입 됨
- 중국에는 지부족재본(知不足齋本)과 고경해휘함본(古經解彙函本) 등이 전하며, 일본에는 회덕당총서본(懷德堂叢書本) 등이 전함

#### ② 『논어주소(論語注疏)』

- 『논어집해』에 대한 소(疏)
- 『논어정의(論語正義)』, 『정의(正義)』로 불림
- 『논어의소』에서 사상적 문제가 된 부분 수정
- 명물이나 제도 등에 대한 보충
- 한학(漢學)에서 송학(宋學)으로 변하는 중간의 위치의 책

### 3. 『논어』가 현대에 전해오기까지

#### ① 『논어집주(論語集注)』

- 『사서집주(四書集注)』 중 하나
- 사상적 측면 + 문자, 훈고에 대한 사실 및 고증 제시
- 훈고 위주에서 내용 위주로의 변화
- 오경 중심의 유가 경전이 사서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
- 경문은 형병의 『논어주소』의 것을 거의 그대로 채용
- 현대의 번역서 대부분 주희의 견해에 근거해 번역
- 논어의 주석서 가운데 가장 중시되고 있음

#### ② 『논어정의(論語正義)』

- 청나라 유보남(劉寶楠, 1791-1855)편찬
- 아들 유공면(劉恭冕)에 의해 1865년 완성
- 하안의 『논어집해』에 대해 소를 더한 것
- 황간이나 형병보다 정현(鄭玄)의 견해를 많이 따름
- 한학(漢學)과 송학(宋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청 건륭(乾隆: 1736-1796), 가경(嘉慶: 1796-1820) 시기에 흥성했던 고증학의 방법론을 수용
- 문자와 훈고를 중시하고 역사적 사실과 문물제도에 대한 고증을 충실히 함



## 3. 『논어』가 현대에 전해오기까지

---

### ① 『논어집석(論語集釋)』

- 청나라 말기 정수덕(1877-1944)에 의해 편찬
- 모두 40권, 다양한 해석을 모아 놓은 책
- 첫 부분에 “고이(考異)” 항목을 두어 논어에 대한 다양한 판본상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하며, 여기에 대한 자신의 고증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
- 하안의 『논어집해』를 수록하면서 때에 따라 황간 등 당(唐) 나라 이전의 고주를 밝히고 또 형병의 『논어주소』나 주희의 주도 수록함
- 청나라 때의 주석도 상당수 수록
- 인용한 서적만도 6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

